

# 한·중 불교 관련 속담 비교 연구\*

— 부처에 대한 인식 및 속담과 불교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이황진\*\*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부처에 대한 인식
- III. 속담과 불교의 영향 관계
- IV. 나오는 말

## 【       】

본고는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부처에 대한 인식을 비교 고찰하고, 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의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 관련 속담과 불교의 영향 관계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속담 중에서 부처가 등장하는 속담을 부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처를 대하는 민중의 태도로 유형화 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불교 관련 속담과 속담의 영향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불교가 민중의 생활과 사고방식과 성정 등에 많은 영향을 주며 많은 불교 관련 속담을 생성해 내었듯, 역으로 민중들이 생성해 낸 속담 역시 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불교 관련 속담과 불교는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그 소재만 불교와 관련된 것에서 취하였을 뿐 불교리는 종교적 색채는 비교적 열은 편으로, 속담은 불교와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일상 속의 상황이나 인물을 비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일상 속의 상황이나 인물을 비유하는 속담도 있지만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속담이 많아 종교적 색채가 비교적 짙은 편이다. 한국은 언어와 문자의 괴리 문제로 인해 구비문학인 속담이 조선전기까지는 온전히 기록되어 보존될 수 없었다. 게다가 배불정책을 펼친 조선왕조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불교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던 속담 대부분은 이미 변용되거나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런 탓에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불교적 색채를 상당수 잃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속담이 불교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한국 속담, 중국 속담, 부처, 인식, 기복 불교, 종교성, 불교 전파

## I. 들어가는 말

불교는 한국과 중국에 전래되어 들어온 이후 각국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한국에 불교가 전래되어 들어온 이후 불교는 160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단순히 종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삶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문화를 일궈내면서 민족문화의 모체가 되어 왔으며, 불교문화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sup>1)</sup>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어 들어온 이후 불교는 200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중화(中華) 문화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활력소가 되었으며, 사회생활의 각 영역과 사람들의 의식에까지 깊이 파고들어 중화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sup>2)</sup> 속담은 오랜 세월을 두고 민중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소산으로, 여기에는 한 민족의 성질과 기질이 잘 반영되며, 도덕과 신앙까지도 표현

1)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불교문화사전』, 운주사, 2009, p.5.

2) 黃群, 『佛教對漢語詞語的影響』, 『廣西梧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001年 03期, 梧州師專中文系!廣西賀州, p.27.

된다.<sup>3)</sup>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에 불교와 관련된 속담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거기에는 응당 각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 기질의 차이로 인한 불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도 반영되게 된다.

필자가 확인한 속담 중 부처나 보살이 속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속담은 한국이 50여개, 중국이 170여개로 양으로만 따지자면 중국 속담이 한국 속담에 비해 3배 정도 많다.<sup>4)</sup> 하지만 본고에 앞서 고찰한 바 있는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불보살(佛菩薩)에 대한 인식’<sup>5)</sup>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경우 보살에 관한 속담이 8 개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보살이란 용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의 차이가 큰 편이다.<sup>6)</sup> 본고는 앞서 진행된 연구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부처에 대한 인식을 비교 고찰하고, 지금까지 필자가 진행해온 일련의 불교 관련 속담 연구를 통해 얻어낸 각국 불교 관련 속담의 특징을 바탕으로 속담과 불교의 영향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3) 진경지, 『한·중 속담의 변용과 와전』, 『한국언문문화』 21,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p.296.

4) 필자가 본고에서 참고한 속담사전은 이기문·조남호 공편, 『속담사전』(제3판, 일조각, 2014)과 ‘국립국어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이며, 속담의 뜻풀이 역시 이들의 것을 따랐다. 중국 속담사전은 溫端政의 『中國諺語大全』(上海辭書出版社, 2004)의 것을 주 텍스트로 삼았으며, 崔建林的 『中華諺語歇後語全書』(線裝書局, 2007)을 참고하였다.

5) 이항진,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불보살(佛菩薩)에 대한 인식 비교 고찰』, 『열상고전연구』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 pp.395-430.

6) ‘보살’이란 용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보살은 불타적 존재로서의 보살을 지칭하는 것 외에도 불교를 믿는 여자 신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여자 무속인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중국에는 없는 뜻이다. 반면 중국에서 보살은 넓은 의미의 부처로 인식되며 보통 부처를 보살로 칭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논문, pp.412-419 참조.)

## Ⅱ.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부처에 대한 인식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성스러운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그렇다면 민중문학이자 구비문학인 속담에 나타난 부처에 대한 민중의 인식은 어떠할까? 이 부분에서는 부처에 대한 민중의 인식이 담겨 있는 속담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부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속담

- ◇K1-1.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양칼이 들어있다.> ; <부처님 가운데[허리] 토막>\*
- ◇K1-2. <부처의 얼굴에 마귀의 마음씨다.> ; <말은 부처님인데 마음은 독사다.> ; <부처님 궤(闕)이 나면 대(代)를 서겠네.>
- ◇K1-3. <뛰어 보았자 부처님 손바닥> ; <부처님도 십간십이지를 세어보고 계실까.>
- ◇K1-4. <활인불 골마다 난다> ; <지옥에도 부처가 있다.>
  
- ◇C1-1. <佛心無處不慈悲>[부처의 마음은 자비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
- ◇C1-2. <佛口說善言, 毒蛇在心田.>[부처같은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만, 독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 ; <菩薩面, 蠍子心.>[보살(부처)의 얼굴에 전갈의 마음] 등
- ◇C1-3. <逃不出如來佛的手掌心.>[뛰어 보았자 부처님 손바닥]
- ◇C1-4. <早有早菩薩, 遲有遲菩薩.>[이른 때는 이른 때의, 늦은 때는

늦은 때의 부처가 있다.] ; <窮人自有窮菩薩.>[가난뱅이에게는 그들만의 가난한 부처가 있다.] 등

위의 속담은 한국과 중국 속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속담이다. 부모는 누구나 다 제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지만 자식들 가운데는 부모의 은덕을 저버리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는 말인 K1-1.<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양칼이 들어있다.>와 C1-1. <佛心無處不慈悲>[부처의 마음은 자비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에는 부처는 한없이 자비로운 존재라는 긍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부처님 가운데[허리] 토막>\*이라는 한국 속담은 성질이 온순하고 마음이 어진사람을 비유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속담은 그것이 말해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 부분별하고 필요이상으로 자비로운 존재라는 조롱과 풍자가 깃들여지기도 하므로 온전히 긍정적인 인식이 담긴 속담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K1-2. <부처의 얼굴에 마귀의 마음씨다.> 등의 속담과 C1-2. <佛口說善言, 毒蛇在心田.>[부처의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만, 독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 등의 속담은 모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물에 대한 비난이나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데, 속담 속의 부처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부처는 어질고 자비로운 존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K1-3. <뛰어 보았자 부처님 손바닥> ; <부처님도 십간십이지를 세어 보고 계실까.>(부처님은 세월을 초월하고 있다는 말)와 C1-3. <逃不出如來佛的手掌心.>[뛰어 보았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속담에서 부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세속을 초월한 존재라는 인식이 담겨있다.

K1-4. 어디를 가나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있다는 의미인 <활인불 골마다 난다> 등의 속담과 C1-4. <早有早菩薩, 遲有遲菩

薩.>[이른 때는 이른 때의, 늦은 때는 늦은 때의 부처가 있다.] 등의 속담에서 부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거나 구원해 주는 존재이다. 이를 통해 부처는 민중의 힘들고 지친 삶에서 그들의 위안과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속담 중에는 부처에 대한 공경과 부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이 적지 않다. 이러한 내용의 속담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 ◇C1-5. <看佛敬僧, 看父敬子.>[부처를 봐서 중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봐서 아들을 공경한다.] ; <不看僧面看佛面.>[스님 체면은 봐주지 않더라도 부처님 체면은 세워줘야 한다.] 등
- ◇C1-6. <多年媳婦熬成婆, 多年和尚熬成佛.>[고생을 참고 견디어 내다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중이 부처가 된다.] ; <誰走的路遠, 誰到西天成佛.>[열심히 걸어간 사람이 서천에 가서 부처가 될 수 있다.] ; <不磨不煉不成佛.>[갈고 닦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 <千年道行只一佛.>[천년의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 ; <受不得煙燻, 就成不得佛.>[향의 연기를 견뎌낼 수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등

위의 속담들은 마치 불교 홍보나 전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불교계 내에서도 충분히 유통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그만큼 부처가 중국의 민중에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공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C1-5의 속담 속 부처는 궁극적으로 공정(존중)의 대상이 된다. 이 속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응용이 가능하겠지만, 종교적 범주에서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속담은 마치 현대사회에서 그릇된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성직자(중, 신부, 목사 등)를 비난할 때,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지만 신이 아니므로 그 종교의 신을 모욕해서는 안 되며,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야지 목사를 보고 다니면 안 된다고나, 불교에 대한 믿음은 부처님을 향한 것이니 잘못을 저지른 중을 보고 부처를 욕하면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불교 수행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다. C1-6의 속담은 모두 ‘성불(成佛)’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승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범부 보살 사상(凡夫菩薩思想 : 누구든지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보살도에 정진할 경우에 성불할 수 있다는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속담에서의 ‘성불’은 불교적 입장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성불’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속담들은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삶의 태도와 처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 2. 부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속담

- ◇K2-1. <길 아래 돌부처> ; <실없는 부처 손> ; <절간 부처님>
- ◇K2-2. <법당(法堂)은 호법당(好法堂)이나 불무영험(佛無靈驗)>
- ◇K2-3.\* <부처님 공양 말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라.> ; <명산대천에 불공 말고 타관 객지에 나선 사람 팔시를 마라.> ; <절에 불공 말고 없는 놈 구민 주겠다.> ; <염불한다고 극락 가나 마음이 착해야

극락가지.>

- ◇C2-1. <十個菩薩九個饑.>[열 부처 중 아홉은 먹기(공양)를 좋아하는 다.] ; <佛要的是貢品, 人喜的是好言.>[부처가 바라는 것은 공물이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좋은 말이다.] 등
- ◇C2-2. <天天佛前賭燒紙, 有病不治還是死.>[매일 부처 앞에서 지전을 태워봤자, 병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죽을 뿐이다.] ; <聽了佛法要餓煞, 聽了官法要拷煞.>[부처님 말씀을 들어봤자 굶어 죽을 뿐이고, 관리 말을 들어봤자 맞아 죽을 뿐이다.] 등
- ◇C2-3. <拜佛不如求自己.>[부처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 못하다.] ; <燒香不如還俗債.>[부처한테 향공양 하느니 속세의 빚을 갚아라.] 등
- ◇C2-4.\* <求神拜佛一世, 不如修路一尺.>[부처를 한 평생 공경하는 것은 길 한 척을 수리하는 것만 못하다.] ; <念佛念一世, 勿如過橋石板鋪一記.>[한 평생 염불을 하는 것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돌판 하나를 까는 것만 못하다.] 등
- ◇C2-5. <在家敬父母, 何必遠燒香.>[집에 계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멀리까지 가서 향공양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 <朝山拜佛是虛套, 堂上二老不可拋.>[산을 향해 부처를 공경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니, 집에 계신 부모를 버려둬서는 안 된다.] ; <施佛飯僧不如奉親, 塑像樓廟不如濟貧.>[부처와 중에게 시주하느니 부모님을 모시고, 불상을 만들어 절에 모시느니 가난을 구제하라.] 등
- ◇C2-6. <佛不入地獄, 誰入地獄.>[부처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속담 중에는 부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속담이 많지 않으며, 그 긍정의 정도도 약한 편이다. 그렇다고 부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속담이 더 많거나 그 강도가 더 센 것도 아니다. 한국 속담 K2-1에 담긴 부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부처가 무심하고,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 여겨지는 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 속담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처라는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인 불상(佛像)에 빗대어 비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C2-1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가 공양과 공물 받기를 바라기만 하는 다소 탐욕적인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듯하다.

기복 불교란 부처에게 복을 달라고 빌기만 할 뿐, 부처가 일러준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는 불교를 말한다.<sup>7)</sup> 이런 기복 불교의 성향이 강한 한국과 중국에서 사람들은 종종 부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거나 자신에게 복을 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부처가 영험이 없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리가 K2-2. <법당(法堂)은 호법당이나 불무영험(佛無靈驗)>과 C2-2. <天天佛前瞎燒紙, 有病不治還是死.>[매일 부처 앞에서 지전을 태워봤자, 병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죽을 뿐이다.]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속담 C2-3의 속담에는 부처는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존재이니 부처를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향을 살 돈으로 속세의 빛을 갚으라 한다. 부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인 것이다.

반면, K2-3.\* <부처님 공양 말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라.> 등의 속담과 C2-4.\* <求神拜佛一世, 不如修路一尺.>[부처를 한 평생 공경하는

7) 김태훈, 『한국 근대 불교의 민중적 성격-기복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3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8, p.111.

것은 길 한 척을 수리하는 것만 못하다.] 등의 속담은 얼핏 보면 쓸데없이 부처를 공경하지 말고 인간적인 도리를 먼저 하라는 의미로 읽히며 부처란 존재에 대한 부정의 표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속담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지로 덕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속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 중에는 효와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반해, 중국의 불교 관련 속담 중에는 C2-5. <在家敬父母, 何必遠燒香.> [집에 계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멀리까지 가서 향공양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등의 속담처럼 효와 관련된 속담이 다수 있다.<sup>8)</sup> 이러한 속담은 외래 종교인 불교의 사상과 중국의 전통 사상인 유교와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교를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의 문제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들어온 이후부터 줄곧 끊이지 않고 불교의 비난거리가 되어 왔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교사상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여기에는 외래에서 들어온 불교사상보다는 중국의 전통사상이 더 우월하다는 민족적 우월감과 민족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적 사상에 기반한 부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C2-6. <佛不入地獄, 誰入地獄.> [부처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라는 극단적인 내용을 담은 속담으로 표출되기까지 한다. 출가하여 부모를 섬기지 않고 후사를 잇지 않는 불효를 저지르게 하는 부처야말로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8) 효와 관련된 불교 관련 속담이 중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이유를 필자는 한·중 양국의 불교 전래 시기 그리고 출가를 불효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배불론의 대두시기 및 그 전개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한·중 속담에 나타난 ‘중’의 형상에 대한 비교 연구 (2) -중국 속담에만 나타나는 ‘중’의 형상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339-348.) 참조

부처가 등장하는 속담 중에는 인간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부처를 가늠하거나, 인간의 감정을 입입시켜 부처를 이해하는 속담이 여럿 있다. 이러한 속담 속 부처는 숭배 대상으로서의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신성이 제거된 부처의 모습을 한다.

◇K2-5. <부처님도 화 낼 때가 있다.> ; <시앗싸우엔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 <부처도 다급하면 거짓말한다.> ; <부처도 하루 밥 세 끼다.>

◇K2-6. <부처에 팔 다리 떨어진 것이 있다.> ; <부처님 살찌고 파리하기는 석수(石手)에 달렸다.> ; <부처 밑을 기울이면, 삼거위가 드러난다.> ; <흙으로 만든 부처가 넷물을 건너간다.> 등

◇C2-7. <佛都有火.>[부처도 화낼 때가 있다.] ; <觀音菩薩也有落難的時候.>[관음보살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 등

◇C2-8. <佛靠一層皮, 人憑一身衣.>[부처는 금장식에 달려 있고 사람은 옷에 달려 있다.] <泥菩薩落水, 自身難保.>[흙부처가 물속에 빠지면 자신도 구할 수 없다.] 등

K2-5과 C2-7의 속담 속 부처는 인간처럼 화를 내고, 질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이는 그만큼 부처가 민중에게 친숙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부처를 신적 존재에서 인간과 별다른 것 없는 평범한 존재로 끌어내린다. K2-6와 C2-8의 속담 속 부처는 모두 숭배 대상으로서의 부처가 아니라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畫)에 빗대어 부처를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결함이 있는 존재, 인간의 능력으로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존재, 인간의 처지와 별다른 것이 없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이 유형의 속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부처는 민중에게 아주 친밀한 존재이며 자신의 처지를 위로해주거나 삶의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부처는 인간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존재이므로 굳이 공경하거나 숭배할만한 대상이 아니라 는 부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속담으로도 볼 수 있기에 이 부분에서 함께 다루었다.

### 3. 부처에 대한 민중의 태도

부처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에 따라 부처를 대하는 민중의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부처에 대한 민중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기복 신앙적 태도

- ◇K3-1. <급하면 관세음보살> ; <급하면 부처 다리를 안는다.> ; <부처 위해 불공하나 제 몸 위해 불공하지.> 등
- ◇C3-1. ; <禍到臨頭再念佛.>[화가 눈앞에 닥쳐야 부처를 찾는다.] ; <無事不登三寶殿.>[일이 없으면 불당에 오르지 않는다.] ; <平時不燒香, 臨時抱佛脚.>[평소에는 향공양도 하지 않다가 일이 닥치고 나서야 부처 다리를 안는다.] ; <過不得橋來叫菩薩, 過得橋來慢慢踏.>[건너기 힘든 다리에서는 보살(부처)을 찾고, 건너기 쉬운 다리는 천천히 밟아 건넌다.] 등
- ◇C3-2. <見了大佛磕磕拜, 見了小佛踢一脚.>[큰 부처를 보면 머리 숙여 절을 하고, 작은 부처를 보면 발길질을 한다.] ; <拜羅漢八百,>

不如求佛一尊.>[팔백 나한한테 절하는 것은 부처 하나에게 절하는 것만 못하다.] ; <見什麼人說什麼話, 見什麼菩薩燒什麼香.>[사람에 따라 말을 가려하고, 보살에 따라 향공양을 달리한다.] 등

◇C3-3. <現燒香現捏佛, 燒了香毀了佛.>[방금 향을 피우고 부처를 모시더니, 향을 다 태우고서는 부처를 부순다.] ; <吃菩薩, 看菩薩, 灶裏無柴燒菩薩.>[보살(부처) 덕에 먹고, 보살(부처) 덕에 보면서도, 펄감이 없으면 보살(부처)을 태운다.] 등

◇C3-4. <佛爺善, 獻把面; 關爺惡, 豬羊多.>[부처님은 착하다고 국수를 바치면서, 관공은 사납다고 돼지 양을 갖다 바친다.] ; <見佛燒香, 見鬼叩頭.>[부처를 보면 향을 피우고, 귀신을 보면 머리를 조아린다.]

위의 속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처에 대한 민중의 태도는 실리적이고 현세이익적인 측면이 강하다. K3-1. <급하면 관세음보살> 등의 속담과 C3-1. <禍到臨頭再念佛.>[화가 눈앞에 닥쳐야 부처를 찾는다.] 등의 속담에서 볼 수 있는 자신이 위급할 때에나 신을 찾게 되는 이기적인 태도 정도야 신실한 신앙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라 치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C3-2의 <見了大佛磕磕拜, 見了小佛踢一脚.>[큰 부처를 보면 머리 숙여 절을 하고, 작은 부처를 보면 발길질을 한다.] 등의 속담에 나타난 이해타산적인 태도, C3-3. <現燒香現捏佛, 燒了香毀了佛.>[방금 향을 피우고 부처를 모시더니, 향을 다 태우고서는 부처를 부순다.] 등의 속담에서 볼 수 있는 자신의 필요가 다 하면 돌변해 버리는 위선적인 태도, C3-4. <見佛燒香, 見鬼叩頭.>[부처를 보면 향을 피우고, 귀신을 보면 머리를 조아린다.] 등의 속담에 나타난 종교나 신앙의 대상조차 가리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에서는 부처에 대한 진정한 공경과 신앙

심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C3-4의 속담을 통해 “전반적으로 중국의 민간신앙은 불교적이든가 도교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하고 있는 대상이 불교의 불보살이든, 도교의 여러 신들이든 조금도 개의치 않았으며, 그것을 따지고 들 필요도 없다. 오직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영험이든 무엇이든 확실하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다.”<sup>9)</sup>라는 중국 민중의 신앙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처에 대한 태도가 실리적이고 현세이익적인 것은 한국과 중국의 불교가 기복 불교의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sup>10)</sup> 부처는 흔히 민중에게 복을 내려주고 재앙을 물리쳐주는 존재로 여겨졌기에 기복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면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민중의 인식이 위의 속담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 2) 향공양(燒香)에 대한 인식 차이

◇C3-5. <佛圖一炷香, 人爭一口氣.>[부처는 향공양을 바라고, 사람은 존경받길 바란다.]; <人要好話聽, 佛要香火敬.>[사람은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고, 부처는 향으로 존경받길 좋아한다.]

부처를 대하는 민중의 실리적이고 현세이익적인 태도가 중국 속담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차치해 두더라도, 부처를 대하는 중국 민중의 태도에 향공양(燒香)과 관련된 속담이 자주 등장하는 점이 특이하다. 한국에는 향공양과 관련된 속담이 하나도 없는데 반해 중국에는 향공양과 관련된

9) 미찌하다 료우슈 저, 계환 옮김, 『중국불교사』, 우리출판사, 1996, p.342.

10) 한국과 중국의 기복 불교의 전개에 대해서는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2003)의 IV. 기복 불교의 발생과 역사적 전개’ 부분(pp.91-103) 참조.

속담이 30개가 넘는다.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물 가운데 으뜸으로 여겨진 것이 향과 꽃이며, 두 공양물을 합쳐 ‘향화(香華)’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향공양에 관한 속담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향을 피우면 향기가 백천만억 떨어져 있는 부처님 세계까지 널리 퍼진다고 한다. 그로 인해 부처님들이 향기를 맡고 사바세계의 범문을 듣거나 공양하는 이들을 실제로 보고 알게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한다. 즉 향은 사바세계와 부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수단’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줄기의 향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은 곧 부처님과의 만남이며,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겠다는 원력이기도 하다.”<sup>11)</sup> 따라서 향공양에는 불교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고 향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경건함과 진정성이 필요한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향공양과 관련된 대부분의 중국 속담에서는 진심과 정성을 다해 향공양을 올리는 진정어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향공양을 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대다수의 중국 민중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며 부처에게 기도를 하면서 맨입으로 빌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부처한테 공양물 중 최고로 쳐주는 향 정도는 바쳐야 부처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향공양을 했으므로 자신의 소원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위안을 얻었을지 모른다.

민중의 이러한 태도는 C3-5. <佛圖一炷香, 人爭一口氣.>[부처는 향공양을 바라고, 사람은 존중받길 바란다.] 등의 속담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부처가 향공양 받기를 바라고 좋아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민중은 관념상 종교를 만물을 지배하는 위치에 올려놓지 않으며,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도 숭배하는 대상에 대한 경건하고 진지한 신앙심

11) 이성수, 『불교와 향(香)』, 『불교신문』 2215호, 2006년 3월 29일자.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02>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욕구나 실익을 챙기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sup>12)</sup> 향공양과 관련된 중국의 여러 속담을 통해서도 그러한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대표적인 공양물 여섯 가지(향·등·꽃·과일·차·쌀)를 ‘육법공양(六法供養)’이라 일컫는데, 이 육법공양은 인도와 중국의 경전에는 기록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지환도인(智還道人)의 『범음집(梵音集)』에 나타나며, 특히 한국불교에 정착한 공양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sup>13)</sup>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행이념인 육바라밀<sup>14)</sup>과 육법공양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 향은 ‘지계(持戒) 바라밀’의 상징이며 불교의례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한다.<sup>15)</sup> 한국에서는 신라 법흥왕 때 고구려 승려 묵호자(墨胡子)가 향에 대해 “이것은 태우면 향기가 나는데, 신성한 곳에 정성이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성스러운 것으로는 삼보(三寶)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첫째는 불타요, 둘째는 달마이고, 셋째는 승가입니다. 만약 이것을 태우며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향을 피워 공주의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sup>16)</sup> 그리고 권순형의 연구에 따르면, 향은 고려초기에는 왕실과 귀족에게 독점되어 있었으나 고려 중기 이

12) 李曉光·李樹新, 『‘平時不燒香, 臨時抱佛脚’ -關於漢語佛教熟語文化特征的思考』, 『漢子文化』 2012年 06期, 赤峰學院初等教育學院, p.67.

13) 김수인, 『육법공양에서 차의 위상과 의미』, 『한국예다학』 창간호, 원광대학교 한국예다학연구소, 2015, p.28.

14) 육바라밀(六波羅蜜) :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으로  
① 보시(布施) 바라밀 ② 지계(持戒) 바라밀 ③ 인욕(忍辱) 바라밀 . ④ 정진(精進) 바라밀 ⑤ 선정(禪定) 바라밀 ⑥ 반야(般若) 바라밀을 일컫는다. 바라밀이란 ‘지혜의 완성’ 또는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2011, pp.107-111.) 참조.

15) 김수인, 앞의 논문, p.34.

16) 김부식,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법흥왕 15년.

후 향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황해도 우봉’의 기사를 근거로 “금신사(金神寺)가 있는 곳이 우봉현으로 고려시대 경기에 속한 사찰이며, 조선시대에도 송도 사녀들의 신앙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에는 그 성함이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남녀들은 저마다 절에 가서 분향하며 가족의 안녕과 앞날의 영화를 빌었을 것”<sup>17)</sup>이라고 추측하였다. 이처럼 한국 불교 역시 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관련된 속담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한국의 민중에게는 부처님께 경배드릴 때 향공양보다는 합장이나 절[拜]을 올리는 것이 더 보편적인 문화였기 때문일 듯싶다. 한국에서 향을 태우는 문화는 절[寺]보다는 제사나 장례식장과 같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경우에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중국의 부처를 대하는 태도 및 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 중의 하나라 할 만하다.

### 3) 부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담고 있는 중국 속담

중국 속담에는 부처를 대하는 민중의 태도에 실리적이고 현세이익적인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속담 역시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의 속담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C3-6. <拜佛肯拜, 蠟燭香不肯買.>[부처에게 절하는 걸 좋아하면서  
도, 초와 향은 사려하지 않는다.] ; <光許願, 不燒香.>[소원만 빌 뿐

17) 권순형, 「고려 전·중기 향과 문화생활」, 『한국문화연구』 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3, p.30.

향공양은 하지 않는다.] 등

- ◇C3-7. <燒香不虔心, 雨點打背心.>[경건한 마음으로 향공양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眞菩薩面前, 莫要燒假香.>[진짜 부처님 앞에서 거짓마음으로 향을 피우지 말라.]; <虧心人進不得廟門.>[양심에 어긋난 짓을 한 사람은 절에 갈 수 없다.]; <嘴善心不善, 枉把彌陀念.>[입만 선하고 마음이 선하지 않다면, 아미타불을 외워봐야 헛된 것일 뿐이다.] 등

C3-6. <拜佛肯拜, 蠟燭香不肯買.>[부처에게 절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초와 향은 사려하지 않는다.] 등의 속담에는 그저 부처에게 소원만 빌고 바라기만 할 뿐 부처에게는 아무 것도 바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한다. <口念千聲佛, 早晚一炷香.>[천 번 부처님을 외워봤자, 결국 언젠가는 향공양은 한 번 해야 한다.]는 속담만 보아도 중국에서는 부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진정성 있는 태도, 경건한 마음가짐과는 별도로 부처님께 향공양은 필수적인 의례로 여겨진 듯하다. 한국에서는 보통 향공양보다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사실과 견주어 보면 부처님께 공경을 표하거나 기도를 하는 방식에 서로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C3-7. <燒香不虔心, 雨點打背心.>[경건한 마음으로 향공양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등의 속담은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정성 있고 경건한 자세와 참된 마음가짐을 갖고 부처를 대하여야 한다고 경계(警戒)한다. 보통 중국인의 현실주의적 태도로 말미암아 예로부터 한민족(漢民族)은 종교정신이 결핍되어 있으며 한민족(漢民族)의 종교 숭배에도 일종의 장엄감과 신성감이 결핍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데,<sup>18)</sup> 중국에 이러한 속담이 전해진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이다. 하지만 <供起來是佛, 玩兒起來是泥.>

[모시면 부처이지만, 갖고 놀면 진흙일 뿐이다.]라는 중국 속담은 시대를 불문하고 있어왔을 부처에 대한 민중의 상반된 태도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위의 속담들은 ‘모시면 부처’라는 신실한 신앙인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Ⅲ. 속담과 불교의 영향 관계

속담은 대중의 심지·성정 및 인생철학을 반영하는 민족적 지혜의 결정체이며, 역사 및 문화정신의 전통을 함축하고 있는 서민문화의 잔재물이다.<sup>19)</sup> 속담의 이러한 특성을 생각해보면, 불교가 전래되어 들어온 이래 불교의 영향권 아래서 생활해온 한국과 중국의 민중은 당연히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나 체득한 지식에 근거해 수많은 불교 관련 속담을 생성해내고 유통시켜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불교 관련 속담은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시나브로 민중에게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을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가 민중의 생활과 사고방식과 성정 등에 많은 영향을 주며 많은 불교 관련 속담을 생성해 내었듯, 역으로 민중들이 생성해 낸 속담 역시 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불교 관련 속담과 불교는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학자 평성화(彭勝華)는 속담과 불교의 영향 관계에 대해 “중국 속담은 불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18) 尤俊成, 『與佛教有關的貶義俗語的文化審視』, 『語文學刊』, 1991年 1期, 內蒙古師範大學成人教育學院, p.35.

19) 김선풍, 『속담 시가형 시고』, 『관대논문집』 1, 관동대학교, 1976, p.29.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불교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낸 속담과 불교 어휘가 사용된 속담의 광범위한 유통은 민중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불교의 전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불교를 비판하거나 불교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하는 속담으로 말미암아 민중은 불교의 위선적인 면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됨으로써 불교의 사상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결국 불교에 대한 민중의 신앙을 뒤흔들었다.”<sup>20)</sup>고 정리하였다. 이는 한국 속담과 불교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진행한 일련의 한·중 불교 관련 속담에 대한 연구(‘중’ 관련 속담과 ‘불보살’ 관련 속담)를 통해 포착하게 된 한·중 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의 특성은 사뭇 다르다.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그 소재만 불교와 관련된 것에서 취하였을 뿐 종교적 색채는 비교적 옅은 편으로,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을 말하기보다는 불교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일상 속의 상황이나 인물을 비유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반면, 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일상 속의 상황이나 인물을 비유하는 속담도 있지만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도 많아 종교적 색채가 짙은 편이다. 다시 말해,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이 중국의 그것보다 비유성이 더 강한 반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이 한국의 그것보다 종교성이 더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속담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언뜻 쉽게 그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워 그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보아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별다른 설명이나 해설이 없이도 바로 이해가 되는 속담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20) 彭勝華, 「諺語和佛教」,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9年 04期, 南京大學, p.58.

그러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과 불교의 교리나 사상을 담고 있는 속담은, 민중의 문학이며 구비문학인 속담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불교의 선전과 전파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불교의 전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속담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앞서 밝힌 바 있듯이 불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 놓은 속담이나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속담은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가 보기에 그나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불교의 사상이나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본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K4-1. <길에 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 <오다가다 옷깃만 스쳐도 전세의 인연이다.> 등

◇K4-2. <죄악은 전생의 것이 더 무섭다.> ; <삼대 적선을 해야 동네 혼사를 한다.> 등

K4-1의 속담은 인연 혹은 연분에 관한 속담으로 실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속담이다. 인연과 연분이란 단어가 처음에는 불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였지만 차츰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의미가 확장되며 일반어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처럼, 이 속담 역시 불교와 관련된 속담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화된 의미를 갖게 된 속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속담의 기저에는 사실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죄악은 전생의 것이 더 무섭다.>는 전생에서 지은 죄악은 이승에서 짓는 죄악보다 더 무서워 그 대가를 이승에 와서 몇 배나 더 받는다는 말이

다. 이처럼 K4-2의 속담에는 불교의 업보 사상과 연기 사상과 윤회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사상은 현대에도 친숙하다. 근래에 들어 사람들이 누군가 엄청난 행운을 얻었거나 남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는데 경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혹은 “삼대가 덕을 쌓아야 ……”라는 표현을,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혹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는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도 알게 모르게 불교의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은 현대에 생성된 신조 속담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속담은 그만큼 불교를 선전하고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국의 속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의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C4-1. <因緣本是前生定，不是因緣莫强求。>[인연이란 것은 본래 전생에 정해진 것이니, 인연이 아니면 억지로 구하지 말라.] ; <百年修來同船渡，千年修得共枕眠。>[백년을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탈 수 있고, 천년을 수행해야 베개를 같이 베고 잘 수 있다.] 등
- ◇C4-2. <積善必善報，作惡必惡報。>[선한 업을 쌓으면 선한 보응이 있을 것이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악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 <善惡到頭終有報，遠走高飛也難逃。>[선과 악은 결국 보응이 있는 것이니, 멀리 가고 높이 날아도 피할 수는 없다.] ; <積善的上天堂，作惡的下地獄。>[선한 업을 쌓으면 천당에 갈 것이요, 악한 업을 쌓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 <前世作孽，今世報應。>[전생에 죄를 지으면, 현생에 그 업보를 치른다.] 등

위의 속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국에는 업보 사상과 연기 사상과 윤회 사상이 함께 어우러진 더 다양한 속담이 있다. 선한 업을 쌓을 것을 권하고, 무엇보다 악업을 저지르지 말 것을 일깨워주는 속담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속담은 불교를 신봉하고 인하고를 떠나 민중들에게 생활의 나침반이 되고 경계(警戒)가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중국 속담에는 불교의 교리 혹은 사상을 담고 있는 속담도 여럿 있다.

◇C4-3. <慈悲爲本, 方便爲門.>[모든 일에서 자비가 근본이다.] ; <慈悲勝念千聲佛, 作惡空燒萬炷香.>[자비는 염불 천 번을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악행을 하면 향 만 개를 피운 것이 헛된다.] 등

◇C4-4. <苦海無邊, 回頭是岸.>[고해는 끝이 없으나 깨닫고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 <放下屠刀, 立地成佛.>[칼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다.] 등

이들 속담은 마치 속담을 통해 민중에게 설법을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자비는 불교를 대표하는 용어이자 사상이다. 이들 속담은 고달픈 인생과 속세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삶을 얻으라고 권고하고, 마음속의 사된 욕망이나 원한을 다 내려놓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깨우쳐주고 있다. 이러한 속담을 통해 민중은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런 깨달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을 것이다.

◇C4-5. <佛心無處不慈悲>[부처의 마음은 자비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 ; <佛渡有緣人.>[부처는 인연이 있는 사람만 구제한다.] ; <佛在我心我卽佛.>[부처가 내 마음 속에 있으면 내가 곧 부처다.] 등

- ◇C4-6. <尼姑不嫁夫, 和尚不娶妻.>[비구니는 시집가지 않고, 비구는 장가가지 않는다.]; <和尚口, 吃十方.>[중은 팔방에서 얻어먹는다.]; <和尚不出山門, 難言普渡衆生.>[중이 산문(사원)을 나서지 않으면, 중생을 구제하기 어렵다.]; <出家人不管俗間事.>[출가자는 세속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등
- ◇C4-7. <剃頭的得會使刀子, 當和尚的得會敲磬.>[이발사는 칼을 부릴 줄 알아야 하고, 중이 되면 경쇠(부처에게 절할 때 흔드는 동종)를 칠 줄 알아야 한다.]; <和尚敲磬, 尼姑擊鉢.>[비구는 경쇠를 치고, 비구니는 동발(銅鉢, 자바라)을 친다.]; <和尚在鉢盂在.>[중이 있으면 바리때(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도 있다.] 등

C4-5의 속담은 부처가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해준다. 그리고 C4-6의 속담은 수행자인 중(僧)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C4-7의 속담은 중이 사용하는 법구(法具)에 대해 말한다. 즉, 이들 속담은 불교에 대한 정보나 지식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거나 불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속담은 민중에게 불교란 어떠한 종교이며 불교의 사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효과를 보며 불교 전파에도 적잖은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역으로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불교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은 민중에게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불교 전파, 특히 신도를 확장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속담조차도 불교를 민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이 한국의 그것보다 그러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이 그러한 역할에 미흡했던 이유는 현재 확인해

볼 수 있는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대부분 소재만 불교적인 것일 뿐 그 내용은 불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적어 불교적 색채 즉 종교성이 약하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에 불교적 색채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억불정책이 시행됐던 조선왕조 500년이란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불교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던 속담이 대부분 변용되거나 소멸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이유보다 한국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과 문자가 서로 달랐던 탓에 구어적 특성이 강한 속담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문헌에 기록되며 보존되기도 힘들었다고는 사실이 보다 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속담이 비록 구비문학이긴 하지만 문헌에 문자로 기록되어 정착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대중문학이나 대중문화를 통해 민중에게 더 널리 그리고 더 오래 보존되고 유통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7세기 이후에 와서야 홍만종의 『순오지』, 이익의 『백언해』, 이덕무의 『열상방언』, 정약용의 『이담속찬』 등에 속담이 수집되어 기록되었다. 그나마도 구비문학인 속담을 구어 원문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한문번역형’이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sup>21)</sup> 게다가 이들 속담집은 조선의 억불정책이 시행된 지 30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수집된 속담이기에 그 당시엔 이미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나 인식이 반영된 속담의 상당수는 변용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소설이나 판소리와 같은 대중문학의 발전이 조선후기에 와서야 본격화되었다는 점도 이전 시대의 속담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 큰 이유가 된다.

21) 심재기, 『속담사전 編纂史草』, 『새국어생활』 제4권 제 2호 ('94년 여름), 1994, p.5.

고소설과 판소리와 같은 대중문학에는 상당량의 속담이 담겨져 있기 마련인데,<sup>22)</sup>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그러한 대중문학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대중문학으로서의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문학 활동은 모두 한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구비문학인 속담을 원문 그대로 작품에 활용하여 기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속담의 보존과 유전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불교적 요소가 강한 속담은 점차 소멸되며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점차 그 불교적 색채가 떨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부처에 대한 인식을 비교 고찰하고, 각국 불교 관련 속담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속담과 불교의 영향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속담 중에서 부처가 등장하는 속담을 부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처를 대하는 민중의 태도로 유형화 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 중에는 부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속담은 얼마 되지 않은데 그렇다고 부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속담이 많은 것도 아니다. 반면, 중국의 불교관련 속담 중에는 부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속담도 다수 있지만, 부처에 대한 공경과 부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속담도 다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 중국의 불교는 기복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기

22) 일례로, 판소리 <홍보가>에만 해도 수십 개의 속담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창렬의 『판소리 <홍보가> 중의 심술 관련 속담의 풍자적 의미』(『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1999, pp.97-126)’ 참조.

때문에 부처를 대하는 민중의 태도는 대부분 실리적이고 현세이익적인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중국 속담 중에는 그러한 기복 신앙적 태도를 비판하고 경계하는 속담이 여럿 있어 주의를 끈다.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그 소재만 불교와 관련된 것에서 취하였을 뿐 불교라는 종교적 색채는 비교적 옅은 편으로,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불교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불교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일상 속의 상황이나 인물을 비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일상 속의 상황이나 인물을 비유하는 속담도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불교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이 많아 종교적 색채가 짙은 편이다. 이러한 한·중 불교 관련 속담의 각기 다른 특징은 속담과 불교의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민중의 생활과 사고방식과 성정 등에 많은 영향을 주며 불교 관련 속담을 다수 생성해 내었듯, 역으로 민중들이 생성해 낸 속담 역시 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불교 관련 속담과 불교는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거나 불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속담은 민중에게 불교란 어떠한 종교이며 불교의 사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효과를 보며 불교 전파에도 적잖은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불교 관련 속담이 한국의 그것보다 그러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확인해 볼 수 있는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불교적 색채가 약한 편이다. 그것은 한국의 불교 관련 속담은 언어와 문자의 괴리 문제로 인해 조선전기까지는 온전히 기록되어 보존될 수 없었던 데다가 배불정책을 펼친 조선왕조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불교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던 속담 대부분은 이미 변용되거나 소멸되어 버린 탓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이기문·조남호 공편, 『속담사전』(제3판), 일조각, 2014.  
국립국어표준국어대사전([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溫端政, 『中國諺語大全』, 上海辭書出版社, 2004.  
崔建林, 『中華諺語歇後語全書』, 線裝書局, 2007.

### 2. 논문 및 단행본

- 권순형, 『고려 전·중기 향과 문화생활』, 『한국문화연구』 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3, pp.7-35.  
김선풍, 『속담 시가형 시고』, 『관대논문집』 1, 관동대학교, 1976, pp.27-46.  
김수인, 『육법공양에서 차의 위상과 의미』, 『한국예다학』 창간호, 원광대학교 한국예다학연구소, 2015, pp.27-37.  
김태훈, 『한국 근대 불교의 민중적 성격 -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 『한국종교』 3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8, pp.85-113.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입문』, 조계종출판사, 2011, pp.107-111.  
미찌하다 료우슈 저, 계환 옮김, 『중국불교사』, 우리출판사, 1996, p.342.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불교문화사전』, 운주사, 2009, p.5.  
심계기, 『속담사전 編纂史草』, 『새국어생활』 제4권 제2호 ('94년 여름), 1994, pp.3-25.  
이성수, 『불교와 향』, 『불교신문』 2215호, 2006년 3월 29일자.  
이황진,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불보살(佛菩薩)에 대한 인식 비교 고찰』, 『열상고전연구』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 pp.395-430.  
\_\_\_\_\_, 『한·중 속담에 나타난 ‘중’의 형상에 대한 비교 연구 (2) - 중국 속담에만 나타나는 ‘중’의 형상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327-357.  
진경지, 『한중 속담의 변용과 와전』, 『한국언문화』 21,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pp.295-315.  
최창렬,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1999, pp.97-126.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2003, pp.91-103.

- 李曉光·李樹新, 「‘平時不燒香, 臨時抱佛脚’ -關於漢語佛教熟語文化特征的思考」, 『漢子文化』 2012年 06期, 赤峰學院初等教育學院, pp.67-70.
- 尤俊成, 「與佛教有關的貶義俗語的文化審視」, 『語文學刊』, 1991年 01期, 內蒙古師範大學成人教育學院, pp.35-34.
- 彭勝華, 「諺語和佛教」,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9年 04期, 南京大學, pp.57-60.
- 黃群, 「佛教對漢語詞語的影響」, 『廣西梧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1年 03期, 梧州師專中文系!廣西賀州, pp.27-2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Buddhism-related Proverbs  
in Korea and China

Lee, Hwang-jin

This study compares the perception of Buddha in Korean and Chinese proverb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between proverbs and Buddhism. First, this study looks into proverbs in Korea and China featuring Buddha by categoriz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 of Buddha, the public attitude toward Buddha.

Buddhism-related proverbs in Korea tend to take up only subjects related to Buddhism with little reference to the religion, thus they do not directly address Buddhism but are likely to compare daily situations or persons in the context of Buddhism. On the other hand, Buddhism-related proverbs in China include proverbs that compare daily situations and person but also a greater number of proverbs that directly deal with Buddhism, which are not present in Korea, thus more religious in their content. It can be known that proverbs containing positive perception of Buddhism or ideas of Buddhism had an effect of naturally delivering to the public what religion is Buddhism and what is the idea behind it, while greatly contributing to the propagation of Buddhism in society. When viewed from this aspect, it is believed that Buddhism-related proverbs in China with more religious traits played that role more faithfully.

Key Word : Korean proverb, Chinese proverb, awareness of Buddha, faith for blessing, characteristics of religion, propagation of Buddhism

이황진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전자우편 : ongogsin@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

